

## 제 9-10장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

### I. 에스라·느헤미야 족보

#### 1. 에스라·느헤미야 족보의 기록 순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3차에 걸친 포로 귀환과 관련하여 기록된 족보와 명단이 여러 개 등장한다. 이들은 대체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으나,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각 사건을 설명하거나 정리하기 위해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된 경우도 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주전 53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스 2:1-6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느 7:5-69)</li> <li>대제사장 예수아(여호수아)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 명단(느 12:1-9)</li> </ul>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주전 45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스 8:1-20)</li> <li>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 명단(스 10:18-4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제사장 요야김 당시 제사장의 족장들 명단(느 12:12-21)</li> </ul>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주전 44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루살렘 성벽 재건 담당자 명단(느 3:1-32)</li> <li>언약에 인친 자 명단(느 10:1-27)</li> <li>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명단(느 11:3-24)</li> <li>대제사장 예수아(여호수아)부터 앗두아까지의 족보(느 12:10-11)</li> <li>대제사장 요야김 이후 제사장과 레위인들 명단(느 12:22-26)</li> </ul>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주전 444년 제3차 포로 귀환 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제1차(주전 537년)나 제2차(주전 458년) 포로 귀환과 관련된 족보나 명단보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담당자 명단(느 3:1-32)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 제3차 귀환자로서 느헤미야의 주된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으므로(느 1:1-3, 2:5-8) 성벽 재건에 동참한 자들의 명단을 우선적으로 기록했던 것이다.

#### 2. 에스라·느헤미야 족보의 차이

스 2장에 기록된 제1차 귀환자들의 족보는 느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나 인원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 (1) 기록 시기의 차이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이다. 그가 주전 458년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제2차 귀환자들의 족보를 정리하기에 앞서, 먼저 주전 537년에 있었던 제1차 귀환 당시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 스 2:1-67에 기록되어 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이루어진 제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제1차 귀환자의 족보를 정리한 것이 느 7:5-69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느 7장의 제1차 귀환자 족보에는, 자신의 뿌리를 입증하여 족보에 이름이 추가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떤 이유들로 인해 이름이 제외되기도 하였다. 느헤미야서의 기록이 완성된 것은,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 임기를 끝내고 바사로 돌아갔다가 1년 후 주전 432년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다음이었다.

### (2) 계수 관점의 차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계수한 관점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아스갓 자손은 스 2:12에 1,222명이 귀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느 7:17에는 2,322명이 귀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큰 차이는 아스갓 자손이 이방의 종들을 비롯하여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에스라는 순수한 아스갓 자손만 기록하였고, 느헤미야는 이후 이스라엘 회중으로 인정받은 자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 (3) 기록 목적의 차이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그와 함께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제1차 포로 귀환자 족보를 소개하였다. 에스라가 기록한 제1차 포로 귀환자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 해방에 대한 말씀의 역사적 성취의 증거이자, 제1차 귀환자들과 제2차 귀환자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마친 뒤, 성벽 봉헌과 예루살렘성에 거할 자들을 선정(느 11:1-2)하기에 앞서 제1차 포로 귀환자 족보(느 7:5-67)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성이 언약 백성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대적들의 공격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성별된 인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느 7:4)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 2장의 족보를 바탕으로 주전 458년부터 약 14년 동안 이방 여인과 연혼한 자들이나 족보에서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못한 자들을 정리하고, 반대로 족보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 직분을 회복한 자들을 포함해서, 제1차 귀환자의 족보를 다시 기록했던 것이다.

또한,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는 에스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느헤미야서에는 기록

되어 있지 않다. 스 8:1-20에 기록되어 있는 제2차 귀환자의 족보는 무분별하게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1차 귀환자들의 족보에 기록된 가문을 중심으로 에스라와 함께 귀환에 참여한 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 3. 에스라·느헤미야 족보에 기록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 비교

스 2장과 느 7장에 기록된 제1차 귀환자들의 족보에서 인원수에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명단과 수 비교표

구분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가계별	아라 자손	775명(스 2:5)	652명(느 7:10)
	바합모압 자손	2,812명(스 2:6)	2,818명(느 7:11)
	삿두 자손	945명(스 2:8)	845명(느 7:13)
	바니(빈누이) 자손	642명(스 2:10)	648명(느 7:15)
	브배(베배) 자손	623명(스 2:11)	628명(느 7:16)
	아스갓 자손	1,222명(스 2:12)	2,322명(느 7:17)
	아도니감 자손	666명(스 2:13)	667명(느 7:18)
	비그왜 자손	2,056명(스 2:14)	2,067명(느 7:19)
	아딘 자손	454명(스 2:15)	655명(느 7:20)
	베새 자손	323명(스 2:17)	324명(느 7:23)
	하숨 자손	223명(스 2:19)	328명(느 7:22)
지역별	베들레헬 사람	123명(스 2:21)	188명(느 7:26)
	느도바 사람	56명(스 2:22)	
	벤엘과 아이 사람	223명(스 2:28)	123명(느 7:32)
	막비스 자손	156명(스 2:30)	기록없음
	로드와 하닷과 오노 자손	725명(스 2:33)	721명(느 7:37)
	스나아 자손	3,630명(스 2:35)	3,930명(느 7:38)
성전 봉사자별 (직무별) 자손	아삽 자손	128명(스 2:41)	148명(느 7:44)
	문지기 자손들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배)	139명(스 2:42)	138명(느 7:45)

각 자손별 인원수를 비교할 때, 가계별 자손이나 지역별 자손은 서로 차이가 많은데 성전 봉사자별 자손은 차이가 적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사장 네 개 가문(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스홀 자손, 하림 자손)의 인원수는 4,289명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스 2:36-39, 느 7:39-42). 이는 성전 봉사자들의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계수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제사장은 그 사명

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계수되었음을 알려준다.

스 2장과 느 7장에 계수된 가계별, 지역별, 성전 봉사자별(직무별) 자손의 총 인원수 차이를 계산하면 느 7장에 기록된 인원이 1,281명이나 많다. 그러나 기타 귀환자와 계수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수를 합산한 회중의 총 인원은 42,360명으로 동일하다. 이는 느헤미야가 족보를 정리한 목적이 언약 백성의 ‘성별된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구성		스 2장	느 7장	차이	
회중	지도자	11명	12명	+1명	
	가계별 17개 자손	15,509명	16,722명	+1,213명	
	지역별 17개 자손	8,635명	8,684명	+49명	
	성전 봉사자별 (직무별) 17개 자손	제사장	4,289명	4,289명	
		레위인	74명	74명	
		찬양대	128명	148명	+20명
		문지기	139명	138명	-1명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복	392명	392명	
		계보 없는 제사장	기록 없음	기록 없음	
	기타 귀환자(계보 없는 자)	652명	642명	-10명	
계수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	12,531명	11,259명	-1,272명		
<b>이스라엘 회중 총인원</b>	<b>42,360명</b>	<b>42,360명</b>	<b>동일</b>		
노비	7,337명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	245명	+45명		
<b>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수</b>	<b>49,897명</b>	<b>49,942명</b>	<b>+45명</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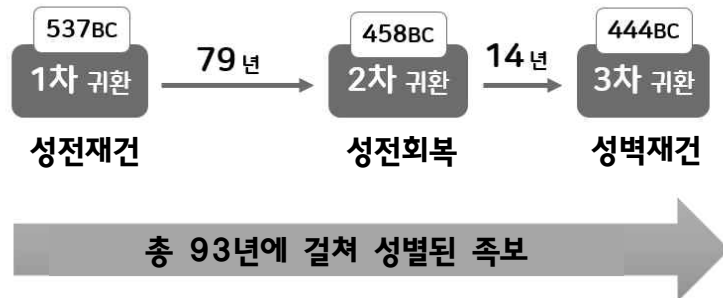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족보는 이스라엘에 속하였다는 표시이므로 매우 중요했다. 족보가 확실히 실시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다(참고-겔 13:9). 특히 자신들의 족보를 밝히지 못한 제사장들은 직분을 박탈당하기도 했다(스 2:61-63, 느 7:63-65).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유다인의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혼인 제도를 바로잡고(스 9-10장, 느 13:23-31), 족보를 살살이 심사하여 다시 정리했다.

이스라엘이 70년간이나 이방에서 포로가 되었던 상황에서도 족보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잘 계승하여 메시아가 오실 순수한 혈통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 II. 가계별로 분류된 17개 자손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총 49,897명에 대하여, 성경은 가계별 귀환자 17개 자손, 지역별 귀환자 17개 자손, 성전 봉사자별(직무별) 귀환자 17개 자손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스 2:3-65, 느 7:5-67). 이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자들’로(스 1:5), 느헤미야 7:5에서는 이 족보를 ‘하나님이 감동하사 계수하게 하신 고로 얻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계(족보)’라고 말씀하고 있다. 제1차 귀환자들의 족보는 한 번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2·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에도 계속 그 명단을 정리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및 언약 갱신과 함께 철저히 성별된 족보로 완성되었다.

### 1. 가계별로 분류된 17개 자손(스 2:3-19, 느 7:8-24)



남 유다의 멸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두 지파별로 족보를 정리해왔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는 지파별이 아닌, 가계별, 지역별, 성전 봉사자별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귀환자들의 대부분이 남 유다의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① 에스라서의 ‘깃발 자손’과 느헤미야서의 ‘기브온 자손’은 같은 사람들로, 지역별 자손에 해당한다(스 2:20, 느 7:25).

(스 2:20) 깃발(גִּבּוֹן) 자손이 구십오 명이요

(느 7:25) 기브온(גִּבּוֹנִים) 사람이 구십오 명이요

② 에스라서의 ‘요라 자손’과 느헤미야서의 ‘하립 자손’은 같은 사람들이다.

(스 2:18) 요라(יֹרָי, <sup>뜻</sup>-가을비, 비 오는) 자손이 일백십이 명이요

(느 7:24) 하립(חֲרִיפִי, <sup>뜻</sup>-가을) 자손이 일백십이 명이요

### 2. 가계별 17개 자손의 구속사적 교훈

가계별 17개 자손의 제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수와 참여

가계별 17개 자손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주전 537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주전 458년)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주전 444년)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에스라 8장	이방인 아내 추방 (에스라 10장)	성벽 재건 공사 참여	갱신된 언약에 인을 칩
1바로스	2,172명		150명	7명	느 3:25下	느 10:14
2스바다	372명		80명			
3아라	775명	652명				
4바합모압	2,812명	2,818명	200명	8명	느 3:11	느 10:14
5엘람	1,254명		70명	6명		느 10:14
6삿두	9445명	845명		6명		느 10:14
7삭개	760명					
8바니(빈누이)	642명	648명		6명		느 10:14
9브배(베배)	623명	628명	28명	4명		느 10:15
10아스갓	1,222명	2,322명	110명			느 10:15
11아도니감 (아도니아)	666명	667명	60명			느 10:16
12비그왜	2,056명	2,067명	70명			느 10:16
13아딘	454명	655명	50명			느 10:16
14아텔	98명					느 10:17
15베세	323명	324명				느 10:18
16요라(하립)	112명					느 10:19
17하습	223명	328명		7명		느 10:18
합계	15,509명	16,722명	818명	44명	2개 가문	14개 가문

(1) 제1차 귀환에 참여한 가계별 17개 자손 중 제2차 귀환에는 아홉 자손이 참여하였고 그중 두 자손만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다.

제1차 귀환에 참여한 17개 가계 중 주전 458년 제2차 귀환에서는 아홉 자손만 귀환했는데, 그 아홉 자손 중에서도 바로스와 바합모압 자손만 주전 444년 성벽 재건에 참여함으로써, 2차 귀환자들의 가문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점점 나태해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제1차 귀환자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제2차 귀환 후 조사한 결과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죄를 범한 가문이 있었다.

‘바로스, 바합모압, 엘람, 샷두, 바니, 브배, 하숨 자손’ 7 가문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회개하여 이방인 아내와 이혼하고 그 자녀까지 다 내쫓았다.

(스 10:2-3) 엘람 자손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sup>3</sup>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 10:19)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스 10:44)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라

에스라서의 마지막 단락은 결국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 에스라의 단호한 명령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명령하신 것을 떠오르게 한다.

(창 21: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3) 제1차 귀환자 가문의 대부분이 제3차 귀환 후 갱신된 언약에 인을 쳤다.

제1차 귀환자 17개 가문 중 바로스와 바합모압 자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문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벽 재건을 6월 25일에 마친 후 7월 24일에 언약을 갱신할 때에는 스바다, 아라, 삭개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가문이 모두 참여하여 인을 쳤다.

-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대적들의 극심한 방해로 불가능할 것 같은 성벽 공사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학사 에스라가 7월 1일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며, 백성으로 깨닫게 하자 백성들은 회개하고 절기를 지키며, 대부분의 가문이 언약 갱신에 참여하게 되었다(느 8:1-12).

### III. 지역별 17개 자손

#### 1. 지역별 17개 자손의 개요

지역별 17개 자손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주전 537년)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주전 444년)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성벽 재건 공사 참여	성벽 낙성식 참여	갱신된 언약에 인침
집발 자손(기브온 사람)	95명		느 3:7		
베들레헬과 느도바 사람	179명	188명			
아나돗 사람	128명				느 10:19
아스마웻 자손 (벤아스마웻 사람)	42명			느 12:29	
기라다림 자손 (기랏여아림 사람)	743명				
그비라 자손 (그비라 사람)					
브에롯 자손 (브에롯 사람)					
라마와 게바 자손	621명			느 12:29	
믹마스 사람	122명				
벤엘과 아이 사람	223명	123명			
느보 자손 (느보 사람)	52명				
막비스 자손	156명	기록 없음			
다른 엘람 자손	1,254명				
하림 자손	320명		느 3:11		느 10:27
로드, 하딧, 오노 자손	725명	721명			
여리고 자손	345명		느 3:2		
스나아 자손	3,630명	3,930명	느 3:3		
합계	8,635명	8,684명	4개 가문	2개 가문	2개 가문

(1) ⑤기다라림(기랏여아림), ⑥그비라, ⑦브에롯은 각각 구분하여 세군데로 계산했다.

① 귀환자 수가 총 743명으로 한 지역의 인원수로 보기에 는 많다.

(스2:25) 기라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칠백사십삼 명이요

(느 7:29) 기랏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칠백사십삼 명이요

② 세 지역이 거리상으로 떨어진 별개의 장소이다.

(2) 서로 인접해 있는 곳은 한 장소로 취급하고 있다.



① 벧엘과 아이 - 성경에서 늘 한 장소로 언급(창 12:8, 13:3, 수 7:2, 8:9, 12, 17, 12:9, 스 2:28, 느 7:32)

(창 13:3)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벧엘에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수 8:12) 그가 오천 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벧엘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② 로드와 하딧과 오노(스 2:33, 느 7:37, 11:34-35).

### ③ 라마와 게바

북 이스라엘 바아사가 라마에 성곽을 건축하였다(왕상 15:17), 남 유다 왕 아사가 라마 성을 허물고 그 자재로 '게바 성'을 쌓았다(왕상 15:18-22).

(왕상 15:17)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왕상 15:20-22) 벤하닷이 아사 왕이 말을 듣고 그 군대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펄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sup>21</sup>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sup>22</sup>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재목을 가져 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나민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 2. 제3차 귀환 후의 역사

### (1) 성벽 공사에 4개 지역 가문이 동참했다.

가까이에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4km 떨어진 지역의 아나돗 사람이 동참했고, 멀리서는 하림 자손이나 스나아 자손(35km)이, 가장 멀리에서는 엘람 자손(40km)이 동참했다.

### (2) 성벽 낙성식은 성벽이 재건되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낙성식'(נִסְחָה, 하누카) - 봉헌식, 헌신

### ① 언약에 인침

6월 25일	7월 1일	7월 15일	7월 24일
성벽 공사 완성 (느 6:15)	에스라의 율법 강론 (느 8:1-12)	초막절 (느 8:13-18)	언약 갱신식 (느 9장)
	영적 준비		

(느 7:4)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 ② 거주지 재배치

(느 11:1-2)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sup>2</sup>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느 13:1-3)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sup>2</sup>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

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sup>3</sup>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6월 25일	7월 1일	7월 15일	7월 24일	7월 24일 이후	
성벽 공사 완성 (느 6:15)	에스라의 율법 강론 (느 8:1-12)	초막절 (느 8:13-18)	언약 갱신식 (느 9장)	거주지 재배치 (느 11:1-2, 25-36)	성벽 낙성식 (느 12:27-43)
	영적 준비			육적 준비	

### 3. 지역별 17개 자손의 구속사적 교훈

- 철저한 회개 속에서, 성별된 족보는 완성되어 간다.

(1) 회개하는 자는 '남는 자'가 된다.

① 3번째 '아나돏' 사람 (렘 32:1-15)

- 성벽 재건공사, 성벽 낙성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갱신된 인친자 명단에는 '있음'  
(느 10:19) (느 10:1 그 인친자는..) 하립, 아나돏, 노배

② 17번째 '스나아' 자손

- 다른 지역별 귀환자 자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귀환자의 수  
(스 2:35) 스나아 자손이 삼천 육백 삼십명이었더라

- 지역별 귀환자, 에스라서 기준 총 8,635명 (그 중 스나아 자손은 약 42%)

- '스나아'(세나아, סנא) - 가시가 많은(창 3:18, 겔 28:24, 렘 51:50)

-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였으나 성벽 낙성식과 갱신된 인친자 명단에는 '없음'

(느 3:3)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렘 9:27-28)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sup>28</sup>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은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계 22:14)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2) 회개하는 자는 신앙을 전수한다.

① 14번째 하립 자손

- 에스라 조사,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명단에 하립 자손 8명 기록, '철저한 회개'

(스 10:31-32) 하립 자손 중 엘리에셀과 잇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sup>32</sup>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스 10:44)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

- 성벽재건 공사 참여, 갱신된 인친자 명단에 '있음'

(느 3:11) 하림의 아들(자손) 말기야와 바합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느 10:27) (느 10:1 그 인친자는) .. 말룩, 하림, 바아나이였느니라

② 어문, 제7구역 중수 '사독'

(느 3:4)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프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 사독의 부친 '바아나'(뜻-'고통중에), 아들 '사독'(뜻-'의로움)

(느 10:27) (느 10:1 그 인친자는) .. 말룩, 하림, 바아나이였느니라

(느 10:21) (느 10:1 그 인친자는..) 므세사벨, 사독, 앏두아,

(을 1: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사 59:21)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 회개하는 자는 강한 자가 된다.

- 지역별 귀환자 대부분, '베냐민 지파'

① 사사시대 가장 약해진 베냐민 지파

(삿 20:47) 베냐민 육백명이 들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낙달을 지내었더라

② 1차 바벨론 귀환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베냐민 지파 지역의 자손들

깁발 자손(95명), 아나돗 사람(128명), 아스마웻 자손(42명), 그비라 자손과 브에룻 자손(743명), 라마와 게바 자손(621명), 믹마스 사람(122명), 벨엘과 아이 사람(223명), 여리고 자손(345명)

17개 지역별 귀환자 총수 : 8,635명, 그중 베냐민 지역 자손들 : 2,319명

- 과거에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편에 굳게 섰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로 거듭난 것이다.

(고전 1:27-29)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sup>28</sup>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sup>29</sup>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사야 60:21-22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sup>22</sup>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③ 귀환자들의 거주지 재 배치, 베냐민의 분깃 의외의 지역까지 배치됨

(느 11:31-35) '로드, 오노, 하딧' 지중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읍들

- 베냐민 지파의 귀환자의 수가 많았을 뿐 아니라 가나안땅을 회복하려는 열정과 개척정신이 강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④ 하나님 중심, 예배중심의 정체성을 회복함

(느 11:36)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결론:

(계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 4:3) 또 참으로 나와 멩예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 IV. 성전 봉사자별(직무별)로 분류된 17개 자손

성전 봉사자별(직무별) 17개 자손은 다시 ① 제사장, ② 레위인, ③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 ④ 계보가 없는 제사장 가문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이름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양쪽이 완전히 동일하다.

##### 1. 성전 봉사자별(직무별) 17개 자손의 구속사적 교훈

제사장 가문 (4개 자손)	여다야 자손	973명	합계 4,289명
	임멜 자손	1,052명	
	바스홀 자손	1,247명	
	하립 자손	1,017명	
레위인 가문 (8개 자손)	호다위야(호드야) 자손	74명	합계 341명
	아삽 자손	128명	
	문지기 자손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배)	139명	
수종자 가문(이방인) (2개 자손)	느디님 사람 자손	392명	
	솔로몬 신복 자손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 (3개 자손)	하바야(호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래 자손	귀환자 수 기록 없음	

(1) 레위인 가문의 귀환자가 제사장 가문의 귀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 ① 제사장 가문의 귀환자 수

성전 봉사자별(직무별) 17개 자손 중 제사장 가문의 귀환자는 총 4,289명으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의 전체 회중의 합계 42,360명(스 2:64, 느 7:66)의 10%가 넘었다.

##### ② 레위인 가문의 귀환자 수

레위인 가문의 귀환자 수는 총 341명이다. 본래 제사장들의 수보다 레위인들의 수가 훨씬 많았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그 반대가 되었다. 이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제사장 가문은 신앙이 잘 전수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레위인 가문은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레위인 가문의 귀환자가 수종자 가문의 귀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 ① 수종자 가문의 귀환자 수

레위인 가문의 귀환자 수는 총 341명이며(스 2:40-42, 느 7:43-45에는 360명), 수종자(이방인

들) 가문의 귀환자 수는 총 392명이다.

(스 2:58)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삼백 구십 이명이었더라

(느 7:60)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삼백 구십 이명이었느니라

## ② 수종자 가문의 신앙전수

수종자 가문, 곧 느디님 사람 자손과 솔로몬 신복 자손은 본래 성전에서 허드렛일을 담당하였는데, 그 일을 경시하지 않고 성전에서 일하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며 신앙을 전수하였다.

## (3) 임멜 가문은 영육간 회복의 복을 받았다.

### ① 임멜 가문의 바스홀(스 2:37, 느 7:40)은 대제사장 다음의 자리에 있었다.

(렘 20:1)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홀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유사장’은 성전의 총감독으로 대제사장 다음의 부제사장 격의 위치다. 그러나 바스홀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는 죄를 지었다(렘 20:2).

### ② 예레미야는 바스홀을 ‘마골밋사빱’이라고 불렀다.

히브리어 ‘마골밋사빱’은 ‘사방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이며, 이는 바스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마골밋사빱’은 앞으로 바스홀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나타낸다.

(렘 20:6) 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읍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 ③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임멜의 자손들은 신앙을 회복하였다.

- 1차 귀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052명이 귀환(스 2:37, 느 7:40)

- 3차 귀환 후 성벽 재건 시에 임멜 자손 사독은 제37구역 공사를 맡아 헌신(느 3:29)

- 성벽 재건 후, 임멜 자손 아맛새는 예루살렘에 거하며 제사장으로 헌신(느 11:13)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말씀에 도전했던 가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회복시켜주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는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온전히 사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사 43:25, 렘 31:34, 롬 3:23-24, 엡 1:7, 히 8:12, 10:17, 19).

## 5. 기타 귀환자 자손

기타 귀환자 자손들은, 가계별, 지역별, 성전 봉사자별(직무별) 어디에도 들지 않았지만 제 1차 귀환 시 같이 돌아온 사람들로,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 652명(642명-느 7:62)이다.

(스 2:60)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육백오십이 명이요  
(느 7:62)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육백 사십 이명이요

(1) 기타 귀환자 자손들은 바벨론 각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다.

(스 2:59)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앓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여기 나오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앓단과 임멜은 바벨론 각 도시의 이름으로, 이들은 분명 바벨론에서 살다가 제1차 귀환 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다.

(2) 기타 귀환자 자손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기타 귀환자 자손의 이름의 뜻을 볼 때,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게 보인다.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도비야’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느고다’는 ‘구별된’이란 뜻이다.

(3) 기타 귀환자 자손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속해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결과, 정식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을 볼 때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족보를 증명하지 못함으로 이방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이는 자신의 신앙적 뿌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려준다.

## 3. 기타 귀환자 자손의 구속사적 교훈

(1) ‘종족’을 밝히는 것은 조상들의 가문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스 2:59)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앓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종족’은 히브리어 ‘베트 아보탐’(בית אבות)으로 ‘아버지/조상들의 집, 가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타 귀환자 자손은 그들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스라엘의 가문)에 속하였는지를 증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성도 역시 자신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보계’를 밝히는 것은 ‘씨’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① ‘보계’는 히브리어 ‘자르암’으로 ‘그들의 씨’라는 뜻이다. 기타 귀환자 자손들은 ‘그들의 씨’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명해야 했으나, 자신들의 ‘씨’의 정통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② 성도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씨가 아니지만, 참된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갈 3:16, 눅 8:11, 요일 3:9) 영접하여 다시 태어남으로(벧전 1:23),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딤후 3:10-17)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sup>11</sup>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sup>12</sup>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sup>13</sup>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sup>14</sup>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sup>15</sup>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sup>16</sup>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sup>17</sup>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